

대통령 '해금령'... 지역 골프장 '봄' 오나

광주·전남 운영 실태

35곳 690홀 운영 7년새 두배 늘어... 14곳은 추진중 불황 여파 매출 감소... 업계, 세율인하 검토에 기대감

박근혜 정부의 '골프장 활성화 방안'으로 매출 정체 상태에 있는 광주·전남 지역 골프장들이 기지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세제 혜택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수요에 비해 과도하고 급속한 공급에다 불경기, 세월호 여파, 공무원 자제령 등 슬한 악재가 겹치면서 전남지역 상당수 골프장들이 매출 감소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는 빛고을 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3곳에서 45홀을 운영중이다. 전남지역은 현재 여수 경도골프&리조트 등 모두 35곳, 690홀이 운영중이다. 7년 전인 지난 2008년 15곳(303홀)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공사중인 곳이 4곳(54홀), 절차가 이행중인 골프장인 10곳(270홀), 거기에 기업도시 조성사업 등 골프장 건설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대기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골프장 '러시'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이 늘어나는 골프장에 비해 골프 인구는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골프의 '위상'이 예년만 못하다는 가족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여가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골프에 대한 젊은층들의 인기가 뒷받쳐주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더욱이 전남도가 지난해 말 '절대성 골프' 1번 중장계, 2번 해임 등을 내용으로 공무원징계양정을 개정하는 등 사회적 일각에서 골프와 비리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더해졌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공무원들이 골프장 출입을 자제하면서 광주·전남에서 흑자경영하는 골프장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이호범 스포츠마케팅 담당은 "예전에는 부킹 부탁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금감했다고 해도 될 정도"라며 "지금도 주말은 수요가 있는데, 주중에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방침에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높다"며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주중 골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도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골프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골프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출산·고용률 낮으면 자살률 높아

광주, 1997~1999년, 2001~2003년 자살 늘어
(출산률 감소) (소득 감소)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출산율이 높고 고용과 소득 증가율이 클수록 자살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이혼증가율이 높거나 실업 증가율이 클수록 자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최근 보고서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책임연구자 이상영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2012년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상관관계가 나왔다.

연구진은 16년간의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 소득, 실업, 고용, 이혼, 출산, 고령인구증가율, 사회복지지출증가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연구진은 16년간의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 소득, 실업, 고용, 이혼, 출산, 고령인구증가율, 사회복지지출증가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연구진은 16년간의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 소득, 고용, 이혼, 출산, 고령인구증가율, 사회복지지출증가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연구진은 16년간의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 소득, 고용, 이혼, 출산, 고령인구증가율, 사회복지지출증가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자살사망률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이 감소한 1998년 자살사망률이 증가했으며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자살사망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다만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한 2002년 이후에는 꾸준히 자살사망률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부산은 경제성장률과 소득이 감소한 2001~2004년 자살률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이 증가했던 1998~2000년에는 자살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고용률이 다시 떨어진 2006~2009년에는 자살률이 다시 증가했다.

강원도는 1998년과 2001년, 2009년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 때 자살사망률이 크게 늘었다. 대전은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늘어난 1998~2001년 자살사망률이 줄었지만 경제성장률과 소득이 줄어든 2002~2005년에는 자살사망률이 늘었다.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8.1명이었다. 또 연중 자살률은 봄철인 4~5월에 높았으며 11~1월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1997~2012년 월평균 자살 건수는 5월(1068건), 4월(1033건), 6월(1001건) 순으로 높았고 1월(697건), 12월(734건), 2월(782건) 순으로 낮았다.

/연합뉴스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4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강남경) 대강당에서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관계자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담은 글자판을 들고 공명선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협전남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은 3월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중국 청소년 4000명 광주 온다

한·중 청소년 교류 관광상품...국립과학관·향교 등 방문

올 한해 광주시의 다양한 한·중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중국 청소년 40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민선6기 중점 사업인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하나로 이달부터 추진중인 25개의 한·중 청소년교류 관광상품운영사업을 통해 중국 청소년 관광객 40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달에는 지난 2일 중국 산둥어린이 기자단(30명)을 시작으로 위례시 신도초등학교, 강소성 자석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하남성 낙양시 유소년축구단 등 3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지역 학생들과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며 우호관계를 쌓고 국립과학관, 녹색에너지체험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 내 교육관광 인프라를 둘러보고 광주향교에서 한국의 전통예절도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청소년 교육여행 시장을 집중 공략해 지난해까지 해외청소년교류단으로 방문한 총 1만600여명이 광주지역 청소년 5200여 명과 교류했다. 시는 광주만의 다양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잠재 고객인 중국 청소년들이 광주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문을 열면 더욱 다양한 교류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여행객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중 청소년 교류 관광상품...국립과학관·향교 등 방문

올 한해 광주시의 다양한 한·중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중국 청소년 40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민선6기 중점 사업인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하나로 이달부터 추진중인 25개의 한·중 청소년교류 관광상품운영사업을 통해 중국 청소년 관광객 40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달에는 지난 2일 중국 산둥어린이 기자단(30명)을 시작으로 위례시 신도초등학교, 강소성 자석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하남성 낙양시 유소년축구단 등 3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지역 학생들과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며 우호관계를 쌓고 국립과학관, 녹색에너지체험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 내 교육관광 인프라를 둘러보고 광주향교에서 한국의 전통예절도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청소년 교육여행 시장을 집중 공략해 지난해까지 해외청소년교류단으로 방문한 총 1만600여명이 광주지역 청소년 5200여 명과 교류했다. 시는 광주만의 다양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잠재 고객인 중국 청소년들이 광주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문을 열면 더욱 다양한 교류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여행객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수강 하반기 시범 도입...쌍방향 학습도

일반 국민이 국내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쉽게 수강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4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를 올해 하반기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공개강좌는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학습자가 인터넷으로 세계 석학들의

강좌를 무료로 접하고 질의응답, 과제, 토론 등 '쌍방향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사이언스학과 교수들이 2012년 4월 발족한 코세라에는 현재 114개 기관 839개 강좌가 개설돼 있고 이용자는 약 1000만 명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MOOC가 구축되면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MOOC의 공공플랫폼을 만든 뒤 올해

하반기 시범강좌를 20개 정도 개설하고 강좌 수를 2018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각 강좌는 대학 명의로 운영되고 대학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형 MOOC'에 국내 대학의 최우수 강의를 탑재되도록 유도하고 국내 서비스가 안정되면 외국 대학의 강좌도 개설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형 MOOC는 대학의 수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국내 대학의 질 높은 강의를 외국에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한국 고등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MOOC를 통한 학점 및 학위 인정은 온라인 학습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검증 등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5-01호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원 공개모집 공고

「고객행복을 창조하는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를 지향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인원 : 사장 1명, 비상임이사 3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임기 중 해임 또는 임기종료 후 연임 가능
3. 주요 직무내용

사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 ▷ 광주광역시, 시의회, 중앙부처,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대내외적 관계 업무 ▷ 중장기 비전 및 목표설정, 전시회·컨벤션·이벤트 등 각종 행사 유치 ▷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이사회 운영, 인적자원 개발 등 조직 내부관리 ▷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고객 편의시설 개선, 공익사업 확대 등
비상임이사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센터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4. 직무 수행요건

사 장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비상임이사	▷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력 ▷ 이사회 일원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의 견제 및 감독 능력
5.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통)	▷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 및 센터 경력자 ▷ 중앙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
6. 임용계약 및 보수

사장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연봉계약에 의거 지급
비상임이사	▷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수당 등 실비 지급)
7.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2. 4(수) ~ 2. 25(수) 09:00~18:00
 -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kdjcenter2015@hanmail.net),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모든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 접 수 처 : (우 502-82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 라. 제출서류(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http://www.kdjcenter.or.kr)에서 다운로드)
 - 1)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2)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별 경력증명서 각 1부
 - 3)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4)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2015.1.12)에 따라 2)~4)호의 각종 증명자료는 2차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8.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가. 1차 서류전형
 - 1) 심사방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 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 나. 2차 면접심사(※사장 응모자에 한함)
 - 1) 면접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2) 면접방법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PPT 15분 이내 발표 후 개별 질의·응답
 - 3) 심사기준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다. 2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최종 사장 추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광주광역시에서 실시)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지원팀(☎ 062-611-21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